

지역 소식통

고창군, 초등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급 시작

고창군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225명에게 책가방 구입비로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이 시작됐다. 올해 대상자는 225명으로 군은 1인당 10만 원씩 총 22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책가방 구입비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 대상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수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십덕읍 고창군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에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교육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고창 방문의해 경품 이벤트

고창군 탐사로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 고창 방문의해 맞이 '경품추첨' 등 특별 이벤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탐사로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객 중 관외주소를 대상으로 1객실당 1회씩 뽑기를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총 3000명 선착순으로, 1등 광일 무료숙박권(12명), 2등 고창군 기념품 꾸러미(488명), 3등 기념품 1점(2500명)으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이외에도 유스호스텔 입실 당일에 방문한 고창군의 유류관광지 중 2개소 이상의 입장권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숙박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대상 관광지는 고창읍성·상하농원·고인돌박물관 등 총 9개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창군민은 해당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명쾌 · 소탈 · 화기애애' 소통 눈길

##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과 대화' 이어가

이학수 시장이 소탈하면서 명쾌하고 화기애애한 소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이달 14일부터 2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2023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읍·면·동 각계각층 시민을 직접 만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시정에 우선 반영해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23일 현재 23개 읍면동 중 현재 13개 읍면동 일정을 마쳤다. 나머지 10개 읍면동 일정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해 내달 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불편 사항과 크고 작은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 중심' 으 뜸 정읍 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시정과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시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격의 없는 소통 행보

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소화된 일정 동안 이 시장이 만난 시민은 모두 900여 명. 시민들은 방음벽 설치와 사고가 잦은 도로 위험지역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민원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하천 배수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에 이르기까지 약 80건의 의견과 애로를 털어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에는 태인면과 신태인읍, 감곡면에서 진행했는데 △태남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동진강 하천 제방 농로 포장 공사(태인면) △신태인읍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정읍신태인 간 직선화된 4차로 개설(신태인읍) △원삼마을 농업용수 공급대책 요청, 호우 발생 시 감곡천 역류 방지 대책 요청(감곡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발전 공동 목표 향해"

### 부안군-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 개최

부안군은 지난 22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안지역위원회와 2023년 상반기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과 2024년 국가예산 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정기·김습지 전북도의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부안지역위원회 당직자, 부안군청 간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다짐했다.

군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지방도 703호선(위도~식도) 도로개설, 지방도 705호선 노선 지정 및 확장 등 9개 사업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새만금 7공구 토지 임대, 불합리한 수산관계법령 제도개선 등 3건에 대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국가예산 6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부안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 조기 발굴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윈윈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방만한 부안의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마실축제,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 새로운 방향성 제시 ·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 인정받아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뒹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뒹다!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

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제2기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부안군은 23일 전 직원이 공감하는 혁신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00 MZ세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제2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기 주니어보드의 슬로건은 주니어보드(Junior Board)의 이니셜을 딴 'Jump Up! BUAN'으로 '도약하는 부안, 비상하는 부안'의 뜻을 담고 있다.

앞서 군은 7~9급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제2기 주니어보드 회장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79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17개 팀을 새롭게 구

성, 1년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니어보드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및 젊은 세대 중심의 소통창구 마련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하며 젊은 공직자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직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중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균형운영의 주축이 될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특목 특위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화 과정을 거쳐 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젊은 직원들의 손에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가 달린 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혁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제2기 주니어보드 활동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기 부안군 주니어보드는 지난 2022년 1년여의 활동을 통해 총 17건의 조직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MZ에너지 팀의 '신규자 환영카드, 부서공유 캘린더 도입' 제안이 최우수에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정읍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차된 대형화물과 여객, 건설기계 등 영업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단속보다는 계

도에 치중해 왔으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격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1차 단속예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 1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경제 활성화 나서

고창군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32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고물가 등으로 침체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402억원 중 3267억원(60.5%)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율 55.7%보다 4.8%가 높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큰 인건비·물건비 조기집행과 대규모 사업 공정 관리 등 소비·투자부문을 관리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